

지금이 바로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도울 때이다



김장현
전북도지회장

어린 손자가 얼마나 어리나 하면 겨우 걸음마를 하는 정도인데 자꾸 할아버지인 나를 끌어 땡기기에 따라가 보니 참외밭으로 들어가 참외밭에서 참외를 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또 자기 입을 가리키지 않는가? 할아버지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는 애, 어른 할 거 없이 원초적 본능이다”라고 생각했다. 북한 동포에게 우유를 보내자는데 무슨 똥딴지같은 참외와 손자가 등장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필히 손자에게 참외를 맛보게 하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참외 살 돈조차 궁한 형편이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 정황으로 보아 북한은 지금 식량사정이 썩 좋지 않음이 확실하고, 재정상 필요한 식량분을 수입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 듯 싶다. 마치 참외를 가리키고 자기 입을 가리키는 귀여운 손자의 지극히 순박한 원초적 본능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은 굶주려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느 북한의 부모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물론 식량을 북한에 보내는 일이 이번

이 처음도 아니고 우리의 분유가 몇번 북한에 전달된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다만 이번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을 계기로 이 일이 일과성 산발성에 그치지 말고 우리 전 낙농업계가 언제라도

필요에 따라 북한동포에게, 특히 최소한 병고에 시달리는 분이나 절대 영양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만이라도 지속성 있게 공여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시도해보자는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업계가 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상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자금을 조성하고 과·부족의 경우는 정부의 대북 지원 자금이나 종교단체,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볼 일이다. 여기에서 꼭 필요한 조건은 낙농업계가 주축이 될 수 있는 자금의 적립이 필수이고, 그래야만 전체의 협조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현재 우유가 남아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 낙농업계의 자금 압박과 악순환을 일시적으로 그것도 미시적으로 해소해보자는 생각에서 탈피하자는 제의도 아울러 덧붙인다.

이번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을 계기로 우리우유가 언제라도 북한동포에게, 특히 절대 영양섭취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만이라도 우리우유가 공급되도록 해야한다.

북한이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 남쪽에 있어서 남아도는 우유가 자기들에게 공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행여 그네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다면 우유라는 매개를 통해 박애정신을 실천코자 하는 우리들의 의도와 우유의 가치는 반

감되기 십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이 귀한 먹거리를 가지고 과시용이나 정치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이는 성숙되지 못한 생각일 따름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베풀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애듯한 정이 다행히도 우리에게 는 가능하다.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함이 타당하고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성경말씀처럼 이번 운동이 차분한 가운데 성공리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통일우유보내기 운동은 우리미래를 위한 사랑의 실천

날로 어려워지는 낙농현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낙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낙농을 지키고 있는 모든 낙농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정곤
경남도지회장

우리의 낙농현실은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낙농인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순리대로 차분히 해결해 나간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핫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통일 및 남북협력을 위해 물자지원 등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인도주의를 넘어서 한 민족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식량, 보건의료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영양상태와 체격에서 우리나라의 어린이와